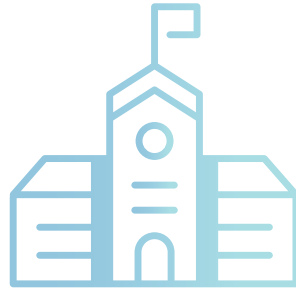


눈사람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정선에서





[1]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그 곳으로 향하는 길은 지도 위에서 서서히 흐릿해지는 선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차창 밖으로 이름 모를 야화들이 점묘화처럼 찍혀 지나갈 때, 속도가 곧 생존인 방송 기자의 삶에서 편도 3시간이 걸리는 국도는 때로 가혹한 유배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선 백전리로 향하는 마을 입구 길목에 들어서면 아스팔트의 매끄러운 오만함은 이내 사라지고, 대신 정직한 흙이 먼지를 일으키며 인사를 건네온다.

[2] 타이어가 비포장도로를 지긋이 누를 때마다 길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건 실로 오랜만에 마주하는 생경한 흙의 향기였다. 박목월의 시구처럼 구름에 달 가듯 가는 유유자적한 길은 아니었다. 마감 시간에 쫓기며 소나기가 쏟아지듯 급박하게 달려가는 취재의 행로 위였지만, 나는 역설적이게도 그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가장 깊은 정적을 만났다.

[3] 도시가 지워버린 대지의 숨결. 라디오에선 정치인들이 인구 소멸을 막는 방법을 늘어놓고 있었다. 우리는 ‘지방 소멸’이란 서늘한 통계학적 선고를 매일같이 타전하지만, 정작 그 땅이 내뿜는 뜨거운 생의 기척을 맡아본 이는 몇이나 될까. 나는 기계 장치의 소음에서 벗어나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들의 웅성거림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정적의 끝에서,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랐으나 간절했던 한 통의 전화를 떠올렸다.

“여보세요?”

“기자님,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일단 한번 와서 봐주세요.”

[4] 전화기 너머 정선 백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다. 폐교의 벼랑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건 관념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신입생을 찾아 태권도 도복을 입었고, 아이들의 손에 악기를 쥐여주었다. 도심의 아이들

을 산골로 불러 모으고자 엘리트 스포츠 태권도부를 창단하고, 학생 한 명당 세 개의 악기를 배우게 하는 ‘생명 자본’을 투입한 거다.

[5] 결과는 기적이었다.

전교생 15명이던 학교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32명이 되었다. 숫자가 두 배 넘게 났던 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가던 마을의 심장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생존의 타종이었다. 그러나 기적의 뒷모습은 지독히도 시렸다. 아이들은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을 품어줄 ‘공간’은 행정의 시간 속에 멈춰있었기 때문이다.

[6]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나의 펜촉은 갈 길을 잃었다. 도서관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얇은 합판 가림막. 교실이 부족해 임시로 세운 ‘가짜 벽’이었다. 문조차 없는 그 얇은 가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있었다. 옆 반 선생님의 판서 소리가 파도처럼 넘어오고, 수학 문제를 풀던 아이가 가림막 너머 음악 시간의 멜로디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는 풍경. 내 렌즈에 비친 건 행정의 무관심이 방치한 흉터였고, 열정이 만든 비좁은 감옥이었다.

[7] 취재 수첩에 적힌 ‘오전 7시’라는 숫자는 행운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단



백전초로 가는길

한 대뿐인 통학버스가 정선 전역의 굽이진 산길을 홀로 돌아야 했기에, 아이들은 새벽 별이 채 지기도 전에 등굣길에 올라야 했다. 버스 창틀에 머리를 기대는 채 까무러치듯 잠든 아이들. 그 고단한 어깨 위로 차가운 아침 햇살이 비칠 때 국가가 약속한 ‘교육권’이라는 거창한 수사들은, 이 산골 학교의 낡은 가림막 앞에서 한없이 또 가없이 초라해졌다.

[8] 나의 화려한 리포트를 위해 펜을 휘두르는 동안, 누군가는 그 얇은 합판 너머의 소음을 견디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렌즈에 그 가림막과 아이들의 무구한 표정을 담으며 내가 기자



거루기 하는 백전초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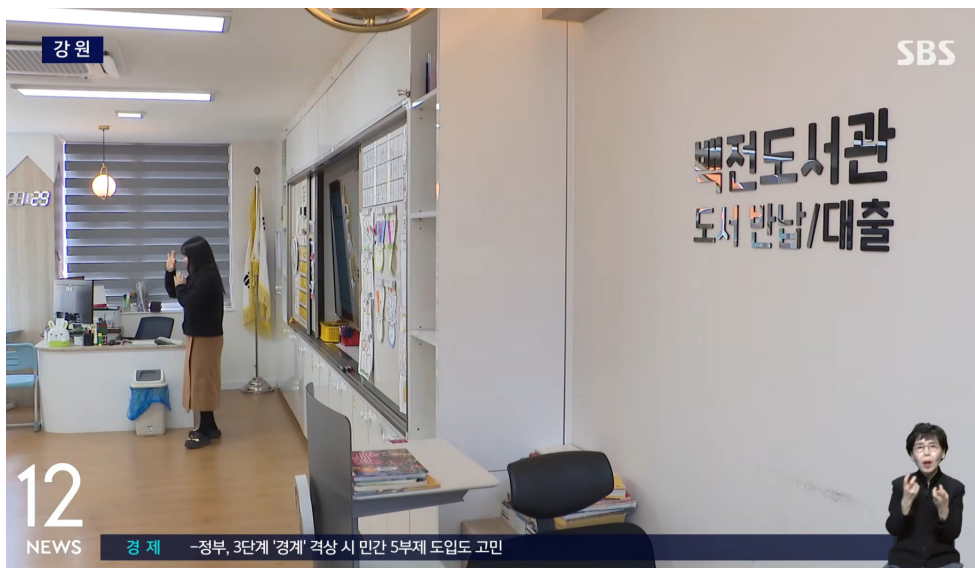
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기사 한 줄이 아이들의 잠 1시간을 되찾아줄 수 있다면, 제대로 된 교실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함을 알게 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직업이 세상에 건넬 수 있는 가장 사소하고도 위대한 다정함이 아닐까.

[9] 보도는 힘이 셸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사연이 방영되자, 멈춰있던 행정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메아리처럼 빠른 속도로 행정은 2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이들의 꿈을 품어줄 체육관과 교실이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아침잠을 지켜줄 통학버스가 한 대 더 배치되었다는 소식

은 어떤 특종보다 달콤했다. 녹이 슨 낱은 놀이터는 아이들의 무릎을 지켜줄 안전한 터전으로 바뀔 준비를 마쳤다. 사람들은 이를 보도를 통한 정책의 성과나 예산 집행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나는 ‘세상 온도를 1도 올린 일’이라 믿기로 했다.

[10] 작은 기도들이 모여 아이들의 등교 시간을 늦추고 교육의 공간을 넓혔다는 사실은, 기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됐다. 좋은 기자가 뭇인지, 또 왜 기자로 사는지도 조금은 다시 생각해봤다. 그렇게 취재를 마무리하던 순간, 나는 한 아이를 만났다.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

정선의 매서운 칼바람에 코끝이 빨개진 채 콧물을 연신 흘쩍이던 그 아이. 학교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느냐는 질문에 아이는 우주를 가진 듯 웃으며 답했다.

“예전에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든 게 가장 좋았어요.”

[11] 그리고 아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처럼,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때 애들이랑 다 같이 기도했어요. 눈사람이 녹지 않게, 겨울이 아주아주 길게 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아이는 정선의 추위 속에서 제 몸을 녹일 난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든 타자의 소멸을 걱정하고 있었다. 제 손이 시린 것은 잊은 채, 오직 눈사람이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 무구한 이타심. 그것이 바로 백전 초등학교가 길러낸 진짜 기적의 열매였다.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고 효율을 따지는 시대에 ‘사랑의 소멸’을 걱정하며 기도했다는 아이의 말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나의 심장을 뜨겁게 적셨다.

[12] 취재 차량은 다시 흙냄새를 뒤로 하고 매끄러운 아스팔트 위를 달린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선



백전초 태권도부 학생들이 훈련하는 체육관

[13] 기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아이의 눈사람이 녹지 않게 작은 지붕을 얹어주는 일이며, 그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세상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튕겨 나가지 않도록 길을 닦는 일이다. 아이의 소망대로 겨울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이가 만든 그 눈사람이 녹아도 슬픔 대신 따뜻한 봄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14] 세상의 모든 ‘눈사람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기꺼이 아스팔트 너머 흙먼지 속으로 나의 마감을 던진다. “여보세요?” 📞

G1방송 김이곤 기자

의 그 아이와 눈사람이 살고 있다. 요즘은 지방선거 취재로 아주 바쁜 나날의 연속이다. 거창한 공약과 수치들이 쏟아지는 현장에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싶을 때도 있다. 그때마다 백전리 잣나무 숲 사이로 새로 생긴 체육관에서 퍼져나갈 활기찬 기합 소리를 떠올린다. 정치적인 수사보다 백전리의 흙먼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훨씬 더 정직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나는 다시 닳아버린 펜을 고쳐 잡는다.